

광주 아파트 시가총액 사상 첫 40조 넘었다

부동산 열풍·신규 아파트 분양 늘어 40조4023억 전남은 12조6878억 ... 전국 총액은 2000조 돌파

부동산 열풍이 광주에도 몰아닥치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섰다. 전국적으로도 아파트값 상승의 여파에 따라 아파트 시가총액이 2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아파트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이래 8년 만에 갑질에 된 셈이다.

지난 3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2071조5746억원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아파트 시장이 활발하던 2006년 1437조원을 기록했던 전국 아파트 시가총액은 국제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1759조원, 거래 침체기던 2012년 1912조원을 거쳐 지난해 말 1952조3980억원으로 올라선 뒤 올해 또다시 지난해보다 119조1766억원 증가했다. 아파트 시가총액은 가격 변동 외에도 그 해에 입주한 신규 아파트가 새로 포함되면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2.37% 상승(11월21일 기준)한데다 조사 대상 가구도 지난해 708만3921가구에서 올해 729만5909가구로 늘면서 시가총액이 상승했다.

신규 아파트 분양이 늘고 및 부동산시장에 거센 청약 열기가 불었던 광주는 올해 40

조4023억원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기록, 처음으로 40조원 대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37조8014억원에서 2조6009억원(6.8%)이나 불어났다. 부동산 열기가 잠잠했던 전남은 지난해 말 12조2605억원에서 12조6878억원으로 4273억원(3.4%) 증가한 데 그쳤다.

서울지역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697조5499억원으로 조사돼 전국에서 가장 컸다. 서울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보다 32조5730억원이 늘어나며 증가액으로도 1위를 기록했다. 강남구의 시가총액은 102조472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겼다. 이어 서초구 80조2752억원, 송파구 76조8332억원의 순으로 강남 3구가 상위권을 싸붙이했다. 이들 3개 구의 시가총액 합계는 259조5804억원으로 서울 전체 시가총액의 37.2%를 차지했다.

대구는 지난해 말 88조6146억원에서 올해 101조3972억원으로 12조7826억원 증가하며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불어났다. 대구시는 올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으로 시가총액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경남(증가액 9조6522억원), 부산(8조9557억원), 충남(4조7055억원), 인천(4조5231억원)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재건축을 비롯한 전국 평균 아파트값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가총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11월 이후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어서 당분간 시가총액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연협뉴스

광주 금형업체 (주)에스디엠 ‘뿌리기술 기업’ 지정

광주지역 금형업체인 (주)에스디엠(대표 조철연)이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30일 에스디엠이 정부의 ‘핵심제조기반 기술산업의 구조고도화지원사업’의 일환인 ‘뿌리기술 전문기업’에 광주·전남에서 2번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문기업이 되면 기술개발과 공정혁신, 정책자금, 인력 및 기타 지원사업 신청 등에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에스디엠은 자동차 부품 양산에 필요

한 프레스 금형을 미주·유럽·아시아 등 20개국에 수출중이며 매출 대비 85% 이상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광주의 전문 수출기업이다.

광주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현재 뿌리기술 전문기업은 전국에 125개가 지정됐지만, 광주·전남은 2개사만 존재해 관심과 지원부분에서 취약하다”며 “지역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금호타이어, 獨 BMW 3시리즈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는 지난 30일 독일 완성차 브랜드 BMW의 3시리즈에 신차용 타이어를(OE, Original Equipment)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BMW 소형차 브랜드 미니(MINI)의 고성능 모델 ‘미니 JCW GP’에 OE를 공급하며 파트너십을 이어온 금호타이어는 BMW의 인기 모델인 3시리즈 OE 공급을 통해 신차용 타이어 공급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탄탄

히 다지게 됐다.

3시리즈는 세계적으로 연간 50여만 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로 국내에서 인기가 높은 차종이다. 3시리즈에 장착되는 ‘엑스타(ECSTA) HM’는 금호타이어의 초고성능 타이어(UHP)로 트레드(바닥면) 컴파운드 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핸들링과 주행안정성을 갖췄으며 젖은 노면에서도 탁월한 주행성능을 자랑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우편번호 내년 8월부터 6자리→5자리로 개편

우편번호가 내년 8월 1일부터 기존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명주소 시행 정착에 맞춰 우편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기초구역 체계의 우편번호 개편안을 12월 1일자로 확정 고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우편번호는 읍·면·동 및 지배원별 담당구역에 나타내는 6자리로 구성돼 있으나 새 우편번호 체계는 5자리로 앞의 3자리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뒤 2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돼 총 3만4000여개가 부여돼 있다.

새 우편번호인 국가기초구역번호는 소방, 통계, 우편 등 모든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게 돼 국가차원의 시너지 효과 예상된다.

연협뉴스



기아차 교통약자 여행지원 1만명 돌파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교통약자 여행지원 가족 1만명 돌파기념 행사’에서 김승진 기아차 전무와 이채필 장애인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및 여행 지원을 받은 가족 100여명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아차는 ‘초록여행’ 사업을 통해 2012년 6월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 1만명이 넘는 교통약자에게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교통약자 여행지원 가족 1만명 돌파기념 행사’에서 김승진 기아차 전무와 이채필 장애인재단 이사장 등 관계자 및 여행 지원을 받은 가족 100여명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기아차는 ‘초록여행’ 사업을 통해 2012년 6월 출범 이후 올해 11월까지 1만명이 넘는 교통약자에게 차량 및 운전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담뱃값 2000원 인상은 서민증세”

업계 비판 ... 일자리 축소·수입담배 활개 우려

여야의 담뱃세 2000원 인상 합의에 대해 담배 업계는 충격을 받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각에선 결국 서민 증세가 아니냐는 비판 의견도 내놓고 있다.

특히 야당이 1000원 인상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00원 인상에 합의하자 업계에 미칠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내다보며 대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상폭이 1500원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빛나기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담뱃값을 한꺼번에 이렇게 큰 폭으로 올리면 흡연자들에게 적

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겉으로는 국민 건강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세금 확대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민층 부담과 함께 밀수 담배 등이 활개를 치면서 국내 담배산업의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준에 제기됐던 여러가지 비판이 수용되지 않은 결과”

라며 “20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서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명백한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금연단체와 흡연자 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금연단체는 정부안대로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내비친 반면 흡연자 단체는 당혹해 하면서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연협뉴스

서훈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은 “선진국 담뱃값과 비교하면 충분하지 않지만 일단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담배값에 흡연 경고사전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애연가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이연의 대표운영자는 “인상분 가운데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것은 흡연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라며 담뱃값 대폭 인상의 부담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회원들과 논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협뉴스

차기 은행연합회장 광양출신 하영구씨 선임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광양 출신 하영구 전 씨티은행장이 지난 28일 선임됐다. 하영구 차기 은행연합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무역학과, 미국 노스웨스턴대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1981년 씨티은행 서울지점에서 경력을 시작해 한국저축은행 총괄이사, 한국투자금융그룹 대표, 한국기업금융그룹 부대표, 한국소비자금융그룹 대표 등을 지냈다.

2001년 48세에 한미은행장에 올라 최

연소 은행장 기록을 세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26회)		2등보너스 숫자
당첨번호		
13	14	26
33	40	43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717,871,110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50,899,885
3	5개 숫자 일치	1,296,996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축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호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주)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